

中國의 天下 思想

— 儒商의 世界化를 中心으로 *—

鄭 仁 在

- I. 緒言
- II. 天下의 道를 전수할 책임을 지는 위대한 인물(大人)— 士
- III. 商人과 四民
- IV. 新四民論
- V. 紳商과 儒商
- VI. 結 論

I. 緒 言

《大學》의 ‘平天下’의 이상은 至善의 세계평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것은 修身을 중심으로 內的으로 자기 聖化를 통하여 外的으로 齊家·治國·平天下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內聖外王이라는 것이다. 유학의 발전역사로 볼 때, 天下思想은 孔子에서 시작하는 原始儒學에서 그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秦漢統一시기의 儒學은 天下統一의 이념이 되었던 것이다. 그후, 新儒學은 佛教·老莊의 영향으로 正心, 誠意, 致知, 格物의 內聖의 方面에서는 그 이론적 깊이를 더해갔으나, 外王方面에서

* 이 논문은 1997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철학연구소 중점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 완성되었음.

는 별다른 발전을 엿볼 수 없었다. 淸初에 黃宗義, 顧炎武등이 外王방면에 관심을 두었으나,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것은 西勢東漸이후부터였다. 서구 열강세력의 끊임없는 通商요구에 동아시아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은 서구가 주도하는 세계질서와 전통적인 天下질서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現代化과정이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은 '유교경전(4서5경)을 스승으로 삼던' 以經爲師시대에서 '서양을 스승으로 삼는' 以夷爲師시대로 바뀌었다. 불교의 도입으로 佛學의 전성시대가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학을 탄생시킨 과거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서양의 文物을 배우고 나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문화를 창조하려는 것이 오늘날 현대 신유학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세계화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서양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부지런히 더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현대 신유학'은 1919년 5·4신문화운동에 대한 반작용(Reaction)에서 시작되었다. 진독수, 호적등이 주도한 新文化운동의 핵심은 서양의 '科學과 民主'를 중국에 모셔와서 중국을 전반적으로 서양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의 유교문화전통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현대 신유학자들의 기본적인 태도이다.

현대 신유가의 한 사람인 牟宗三은 중국문화에 결핍된 '과학과 민주'를 신유학의 입장에서 받아들여 유학을 현대화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유학의 內聖의 입장에서 서구의 外王, 즉 科學과 民主를 받아들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新外王'이라고 하였다. 新外王의 내용은 제3세대 신유학자들까지 주로 과학과 민주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日本을 비롯하여 臺灣,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문화적 배경을 유교문화에서 찾기 시작한 이후부터 조심스

럽게 ‘유교적 자본주의’ 논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新外王의 내용은 과학과 민주와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에까지 확대되고, 이른바 ‘유가식 경영방법’인 ‘C理論’을 제출하는 학자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유교적 자본주의’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儒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역사적 근원을 찾으려고 하였다.

우리 나라도 IMF이전 유교적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논의가 일어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요즈음 경제파탄을 ‘유교적 자본주의’에다 돌리려는 語不成說의 논조도 생기고 있다. 그것은 정격유착이 만들어낸 천민자본주의 또는 아직 봉건적 잔재를 벗어나지 못한 재벌의 세습적 소유양식을 ‘유교적 자본주의’로 착각한데서 생긴 오해이다. 본고는 이러한 곡해를 불식하고, ‘평천하’의 이상을 新外王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 그 중에서 특히, 儒商에 초점을 맞추어서 참된 ‘유교적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세계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문화적 주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서구의 자본주의의 장점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세계화의 길이기 때문이다.

‘儒商’이란 90년대 들어와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배경을 ‘유교자본주의’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후기부터 시작한 덩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중국대륙의 경제여건이 9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른바 아시아 네 마리 작은 龍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이러한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儒商’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¹⁾ 그리고 21세기는 ‘유상’의 시대가

1) 누가 최초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필자는 1996년 8월 중국 貴陽에서 열린 國制陽明學大會에 參席후 北京으로 가던 중 비행기를 기다리던 林維明교수와 談論할 때, 처음으로 ‘儒商’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그는 유상의 근원을 중국 고대에서부터 청 말까지 내려온 ‘土’의 한 부분으로 나타난 것이 儒商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홍콩의 中文大學 교수이자 法住學會(The Light of Dharma)를 創刊한 교수가 준 ‘法燈’ 168号 (1996.6.20) (14周年紀念特刊)을 펼쳐보니, 16면(20면 중)에 法住文化書院이 참조하고 中國 廣州의 中山大學 철학과에서 개설한 《中國文化論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인류가 새로운 紀元, 새로운 世紀, 새로운 千年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新世紀의 中國은 新一代의 商人을 필요로 한다. 즉, 현대 과학기술을 장악하고 또, 중국전통문화 精髓를 깊이 이해하는 新一代의 儒商을 필요로 한다. 중국 商人의 精英인 儒商은 중국시장경제발전의 부름(呼喚)이며, 또한 巨人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巨人을 만들어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呼喚)이다!”²⁾

II. 天下의 道를 전수할 책임을 지는 위대한 인물(大人)——士

‘儒商’은 현대화된 士商이라고 할 수 있다. 儒商은 19세기말 20세기초 西勢東漸에 의하여 空前의 사회변동으로 형성된 ‘紳商’과도 다르다.

紳商에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士人型 紳商, 買辦型 紳商, 그리고 官僚型 紳商이 그것이다. 儒商은 바로 士人型 紳商을 가리킨다. 유상의

壇》에 국내외 학자들이 94년 3월에서 96년 3월까지 35차례 학술 강연한 제목이 실려 있었다. 그 가운데 6번째 1994년 5월 16일 黎紅雷박사의 강연주제가 〈新儒學與新儒商〉이었다. ‘儒商’에 대한 논의는 그 보다 앞서 역시 法住學會가 발간한 《東方文化와 現代企管》(論文集)(1993년 12월)에 中國 人民大學 貿易科 李金軒교수가 쓴 〈儒家文化的 現代商企管에 대한 啓示〉란 제목 하에 ‘興儒商’이라는 首章에서 “儒商을 일으키자는 이 제안에 사람들은 매우奇怪하다고 느낄 것이나 왜냐하면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유가의 창시인 인 孔子는 商을 가벼이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서두를 꺼내고 있다. 이 논문집은 1992년 12월 28,29일 이틀간 제5회 法住學會에서 발표한 論文을 발간한 것이며, 그때 대회 고문으로 林維明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으로 보아 ‘儒商’이란 말은 1992년경부터 사용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 후, 1997년 2월 필자는 본교 동아연구소 지역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유학과 중국경제발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福建省의 각 대학 교수들 및 당국자들과 만나 토론하였다. 2월 18일자 福州晚報에는 문화면에 〈爲商何必冠儒〉(商人을 위하여 왜 반드시 儒의 모자를 씌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儒商’문제를 논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儒商’이란 용어는 대륙에서도 이미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8월에는 ‘儒商之道’라는 저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2) 鮑健強 蔣曉東 《儒商之道》(浙江人民出版社 1997.8) p.2.

근원을 찾기 위하여 ‘士’와 ‘商’에 대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士’에 대한 기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余英時에 의하면, 지식계층은 중국고대에서의 명칭이 ‘士’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곧 지식계층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고, ‘士’가 지식계층으로 변한 것은 그 사이 중요한 발전과정³⁾이 있다는 것이다.

士의 기원에 대하여 顧頡剛은 古代에는 武士만 있었으나, 孔子가 세상을 떠난 뒤에 비로소 文士가 興起하였으므로, 文士는 武士에서 온 것이라 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古代의 文·武를 겸하여 포용한 士가 이 戰國時代에 이르러 둘로 나뉘어졌다. 힘쓰기를 꺼려하는 자는 ‘儒’로 돌아갔고, 힘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狹’이 되었다. 사업으로 삼은 바가 이미 전문화되면, 文者는 더욱 文답게, 武者는 더욱 武답게 되어 각기 극단적 표현을 하게 되었다.”⁴⁾

이 견해에 대하여 余英時は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지식계층인 士계층은 官師·政敎 合一체제였던 王官之學의 道術이 分散되어 諸子百家로 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장자의 표현대로 말하면 “道術이 天下를 위하여 分裂”(道術將爲天下裂)⁵⁾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는데, 余英時は 이것을 ‘哲學的 突破’(philosophic breakthrough)라는 용어를 빌려와 사용하였다. 중국에서의 ‘철학적 돌파’는 古代의 詩·書·禮·樂의 이른바 王官之學에 대치하여 생겨난 것이다. 孔子는 한편으론 ‘述而不作’하여 詩·書·禮·樂의 傳統을 계승하였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詩·書·禮·樂에 새로운 精神과 意義를 부여하였다. 후자의 면에서 공자는 王官之學의 낡은 전통을 突破한 것이다.⁶⁾ 이렇게 공자는 최초로 私學의 길을 열어놓아

3) 余英時 《士與中國文化》(上海, 人民出版社, 1997) p.3.

4) 顧頡剛 〈武士與文士之化〉《中國史綱古代篇》(台北 正中書局 1956) 제2장 6절 p.p42~46參照.

5) 《莊子》〈天下篇〉

諸子百家와 興起하는 局面을 열었던 것이다. 중국의 지식계층은 ‘道’의 책임을 맡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官師治敎는 마침내 각 家로 나뉘어져 다시는 합치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통치를 맡는 官吏와 敎育을 담당하는 스승(師)이 분리되었고, 교육에 종사하는 지식계층인 士는 天下에 ‘道’를 전수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士는 따라서 孔子이후 春秋戰國時代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춘추시대이전 ‘士’는 기본적으로 西周의 封建階級制중의 한 계층이었으며 그 사회적 등급은 ‘大夫’아래 있었고, 庶民의 위에 있었다. ‘士’는 따라서 귀족과 서민의 사이에 있었던 존재였다. 춘추전국시대 사회가 급격히 혼란에 빠지고 등급질서도 따라서 무너져 버렸다. 귀족과 서민사이에 있던 ‘士’는 바로 上下 對流가 회합되는 곳이 되어 貴族으로부터 ‘士’로 떨어지거나 庶民이 ‘士’로 올라가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것은 전국시대에 각국 제후들이 ‘士’를 배양하는 기풍에 힘입었기 때문이었다. 서민계층도 ‘學問’을 통하여 ‘士’에 進入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다. “子張은 魯나라의 비천한 집안출신이고, 顔涿聚는 梁父의 大盜인데 孔子에게 배웠다. 段干木은 晉나라의 큰 건달꾼인데 子夏에게 배웠다. 高下·懸子石은 齊나라의 폭력배로 시골구석에서 손가락질 받았는데, 子黑子에게서 배웠다. 索虜參은 東方의 巨狹인데, 禽滑黎에게서 배웠다. 이 여섯 사람은 刑罰받아 죽임을 당하는 욕된 사람이다. 이제 刑戮의 死辱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天下의 名士顯人이 되어 그 壽를 마치었고, 王公大人이 따라서 禮로 대접하였다.”⁶⁾ 이 같이, 건달, 도적, 폭력배, 교활한 사기꾼 등 비천한 출신도 ‘學’을 통하여 王公 귀족의 禮를 받는 ‘文士’로 된 예를 들고 있다. ‘士’는 學을 통하여 형성된 ‘文士’뿐만 아니라 軍功제의에 따라 평민도 공을 세워 상을 받음으로써 ‘武士’로 상승하기

6) 余英時 《士與中國文化》 p.28~33.

7) 同上.

도 하였다.

‘士’는 이처럼 수량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性質 上에서도 변화하여 사회계층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士’의 아들이 늘 士가 되는 등 급한계를 깨뜨리고, 士는 방대한 사회계층을 형성하여 귀족과 서민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중간계층이 되었다.

당시 ‘士’계층의 사회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士는 道에 뜻을 둔다’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권위보다 도덕적 권위에 무게를 둔다는 것을 말한다. 《論語》는 “士가 道에 뜻을 두면서 변변치 못한 옷과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더불어 논의하기에 부족하다”⁸⁾고 하였다. 士는 커다란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자신의 私利를 초월하여 天下에 도덕원칙(道)을 실현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 曾參은 이러한 뜻을 계승하여 “士는 군센 의지를 넓히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은 무겁고 길(道)은 멀다. 仁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고 있으니 역시 무겁지 않겠는가? 죽은 뒤에야 그만두니 역시 멀지 않는가?”⁹⁾라고 하여 天下에 道를 실현시키려는 士의 책임은 一生동안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주었다. 맹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道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왕자점이 맹자에게 질문하였다. ‘士는 어떤 일을 하는가?’ 맹자 대답 ‘뜻을 높인다.’ 질문 ‘뜻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답 ‘仁義뿐이다. 罪없는 이 하나를 죽여도 仁이 아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데 취하면 義가 아니다.’¹⁰⁾ 仁義는 유가의 道이다. 따라서 仁義에 뜻을 두는 것이 바로 道에 뜻을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둘째, 士의 인격적 태도는 권력과 이익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孟子는 士의 出處進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士는 곤궁

8) 《論語, 里仁》 “士志于道, 而恥惡衣惡食者, 未足與議也.”

9) 《論語, 泰伯》 “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10) 《孟子, 盡心上》 “王子墊問曰, 士何事? 孟子曰 尚志, 曰 何謂尚志, 曰 仁義而已矣 殺一無罪, 非仁也. 非其有而取之, 非義也.”

해도 義를 잃어버리지 않으며 영달해도 道를 떠나지 않는다.”¹¹⁾ 士는 곤궁하건 영달하건 모두 올바른 道와 義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므로 일종의 존엄성을 가지고 權勢에 말려들지 않는 고고한 정신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士는 초연한 독립적 인격을 구비한 존재였다. 순자는 “義가 있는 곳에서 권력에 기울지도 않았고, 그 이익을 들보지 않았으며, 온 나라가 그 편에 들어도 시선을 바꾸지 않고, 두 번 죽어도 義를 지니며 꺾이지 않는 데 이것은 士君자의 용기이다.”¹²⁾라고 하여 고매한 士의 정신 자세를 기리고 있다.

셋째, 士는 벼슬(仕)하고 정치에 참여하여 자기의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는 길로 삼는다. 맹자는 ‘士가 자리(位)를 잃는 것은 諸侯가 國家를 잃는 것과 같으므로 士가 벼슬(仕)하는 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¹³⁾고 생각하였다. 《논어》에도 “벼슬하지 않는 것은 義를 무시한 것이다. …… 君臣의 義를 어떻게 폐지하겠는가? 자신만을 깨끗이 하려고 大人倫을 어지럽히겠는가?”¹⁴⁾라고 하여 세상을 온둔한 선비를 비판하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벼슬자리(位)는 생기게 마련이며, 여기서 士가 남을 위하여 봉사(仕)한다는 것은 義를 실현하기 위하여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義를 실현할 수 없을 때는 도덕원칙(德)과 벼슬자리(位) 사이에는 갈등,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道에 뜻을 둔 士와 현실정치 세력(勢)을 장악한 군주는 벼슬(仕)자리(位)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백성을 위한 봉사와 道의 실천이 결여된 벼슬은 군주의 勢力을 확장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맹자가 걱정하는 “道를 굽혀서 勢에 종사하는”¹⁵⁾ 상황이

11) 《孟子. 盡心上》 “故士窮不失義, 遠不離道.”

12) 《荀子. 榮辱》 “義之所在, 不傾于權, 不顧其利, 舉國而與之, 不爲改視, 重死, 持義而不撓, 是士君子之勇也.”

13) 《孟子. 滕文公下》 “士之仕也, 猶農夫耕也.”

14) 《論語. 微子》 “子路曰 不仕無義, 長幼之節 不可廢也.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欲潔其身而亂大倫.”

15) 《孟子. 滕文公下》 “枉道以從勢”.

쉽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하여 “曲學阿世”하는 지식인들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道가 委曲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士는 부단히 修身을 통하여 道를 지켜나갔다. 孟子는 道가 勢보다 존귀하다고 생각하여 “옛날의 현명한 王은 善을 좋아하고 勢를 잊어버렸다. 옛날의 현명한 士가 어찌 홀로 그렇게 앉겠는가? 그 道를 즐거워하고 남의 勢를 잊어버리었다. 그러므로 王公이 공경하여 禮를 극진히 하지 않으면 그를 빨리 만나지 않았다”¹⁶⁾ 하였다. 士의 人品은 우선 ‘몸으로 道를 싣는다’(以身載道), ‘몸으로 道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以身殉道)는 강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III. 商人和 四民

중국은 원시시대부터 商業活動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周나라는 王宮, 官府의 뒤에 ‘市’(저자)를 구획하여 정해놓고, 매일 3차례 交易을 했다는 것이 《周禮》에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商賈와 市場을 관리하는 각종의 관리가 있었는데 ‘司市’는 市場관리의 총책임을 맡았으며, 賈師, 廛人 등 각기 전문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¹⁷⁾ 西周시대에 이미 商人和 商業資本이 존재했음을 말한다.

禮樂의 질서가 붕괴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한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들이 출현하여 철학의 꽃을 피웠다. 그 중에서 商業에 종사하여 경제활동을 한 儒商의 원류가 되는 이들이 출현하였는데, 范蠡, 白圭, 子貢, 計然 같은 인물이다. 범려는 ‘臥薪嘗膽’으로 유명한 越王句踐을 도운 주인공이다. 그는 월왕의 벼슬자리에 유혹되지 않고 陶夷子皮라고 이름과 성을 바꾸고 제나라로 갔다. 그리고 陶國에

16) 《孟子, 書心上》“古之賢王好善而忘勢. 古之賢士何獨不然? 樂其道而忘人之勢. 故王公不致敬盡禮, 則不得亟見之.”

17) 《周禮, 地官司徒下》.

가서 朱公이 되었다. “10분의 1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 19년 동안 세 번씩이나 千金을 모아 巨富가 되었다. 그를 陶朱公이라 하는데, 뒤에 이 말은 돈 많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다. 《史記》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朱公은 陶가 天下의 가운데에서 諸侯가 四通하고 貨物이 交易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축적하였으며 시간(時)과 함께 다투었으나 남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영을 잘 하는 이는 사람을 고르고, 때에 맡길 수 있다. 19년 동안 세 번 千金을 모았으나, 다시 나누어 가난한 이에게 주었고 소원한 형제들에게 주었다. 이것이 이른바 富好가 그 德을 행하는 것이다.”¹⁸⁾

범려는 뒷날 商人들에게 경영의 神으로 존경받았다. 또 다른 저명한 商人은 周나라의 白圭이다. 그는 賈道에 정통하여 장사할 시기를 잘 포착하였다. 《史記》는 “白圭는 시세 변화 관찰하기를 즐겼다. 그러므로 남이 버리면 나는 취하고, 남이 취하면 나는 내 놓는다. …… 飲食을 보잘 것 없게 하고, 嗜飲은 참고, 의복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일은 僮僕과 같이 하면서 苦樂을 함께 하였다. 時勢를 좇아감이 마치 맹수가 새(鳥)를 채어가듯 하였다”¹⁹⁾고 하였다. 백규는 스스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경영을 하는 것은 伊尹·呂尙의 모략이나, 孫子·吳起의 兵法을 쓰는 것, 商鞅이 法을 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 까닭에 그 智謀가 임시로 變通하기에 부족하고 용기가 결단하기에 부족하며, 仁慈함으로 주고받을 수 없게 되며, 고집스러움이 지키는 바를 가질 수 없다면, 비록 나의 術法을 배우고 싶어도 끝내 그것을 알려주지 못한다.”²⁰⁾ 《史

18) 《史記, 貨殖列傳》“朱公以爲陶天下之中, 諸侯四通, 貨物所交易也. 乃治產積居, 與時逐而不責於人. 故善治生者, 能擇人而任時. 十九年之中三致千金, 再分散與貧交流昆弟. 此所謂富好行其德者也.”

19) 《史記, 貨殖列傳》“白圭樂觀時變. 故人棄我取, 人取我與, …… 能薄飲食, 忍嗜飲, 節衣服. 與用事僮僕同苦樂. 趨時若猛獸擊鳥之發.”

記》는 백규를 평가하기를 “대저 天下에서 경영을 언급하면, 白圭를 시조로 삼는다”²¹⁾고 하였다.

그 외의 또 유명한 儒商으로 孔子의 제자인 子貢이 있다. “子貢은 사두 마차와 기마를 연결시키고, 束帛의 禮幣로 諸侯를 聘問하였으며, 이르는 곳에 나라의 임금이 대등한 지위로 그를 禮遇하였다.”²²⁾ 자공은 한편으로 孔子를 따라 道를 배우면서, 또 한편 상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 자공은 經商의 道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사업은 번성하여 富商이 되었던 것이다. 孔子의 명성이 天下에 널리 퍼지게 된 것도 이 富商인 子貢이 앞서 그를 후세에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古代 商人 계층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四民’의 구조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전통사회는 ‘士·農·工·商’의 등급질서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四民說은 《管子》에서 시작되었다.

“士農工商 四民이란 나라의 주춧돌 같은 백성이다. 뒤섞여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뒤섞여 살면, 그 말이 혼란하게 되고 그 일이 뒤죽박죽으로 된다. 이 까닭에 聖王이 士는 반드시 한가롭고 편안한 곳에 살게 하고, 農夫는 반드시 밭에 나아가는 데서 살게 해야 하며, 工人은 반드시 官府에 나가는 데서 살게 해야 하고, 商人은 반드시 市井에 나가는데 살게 해야 한다”²³⁾고 하여 4개의 사회집단이 각기 자기의 직업을 나누어 거처하는 곳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4民은 직업상의 구분이 있었으나, ‘商工’이 賤視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국시대부터 重本抑末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商鞅의 ‘農戰’ 사상은 ‘重農抑商’에 바탕을 두고 전개하였다. “商이 식

20) 上同. “吾治生產. 猶伊尹. 呂尙之謀. 孫吳用兵. 商鞅行法是也. 是故其智不足與權變. 勇不足以決斷. 仁不能以取予. 彊不能有所守. 雖欲學吾術. 終不告之矣.”

21) 上同. “蓋天下言治生祖白圭.”

22) 上同. “子貢結馬四連騎. 束帛之幣以聘享諸侯. 所至. 國君無不分庭與之抗禮. 夫使孔子名布揚於天下者. 子貢先後之也.”

23) 《管子·小匡》“四民者. 國之石民也. 不可使雜處. 雜處別其言說. 其事亂. 是故聖王之處士. 必於閒燕. 處農必就田疇. 處工必就官府. 處商必就市井.”

량을 사들일 수 없으면 흉년에 즐거움을 더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흉년에 넉넉한 이익이 없어진다. 넉넉한 이익이 없어지면 商이 겁낸다. 商이 겁내면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商人이 농사지으려 하면 황무지는 반드시 개간될 것이다.”²⁴⁾ 상앙은 本末 개념을 農商관계로 환원시켜 ‘근본을 일삼고 말단을 금지하는’ 주장을 펼쳤다. 상앙은 농업이 立國의 근본이며 治國의 요점은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에 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荀子は 한편으로 “商賈가 진실하여 속임이 없으면, 商賈가 안정되며 재화가 통용되어 국가의 수요가 충족된다”²⁵⁾고 하여 商人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농업이 財富의 가장 기본적 원천이라고 생각하여 “工商이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그러므로 “工賈를 줄이고 농부를 많게 해야 한다.”²⁶⁾고 주장하였다.

춘추전국시대에 四民의 사회적 分業은 생겨났으나 결코 뒷날 같은 ‘四民’을 等級的 사회질서로서 보지는 않았다. 등급질서로서의 ‘四民’사회는 西漢前期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文帝, 景帝시대에 土를 높이어 四民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였고, 전면적으로 抑商정책을 실행하여 2천여 년간 商人을 천하게 여기는 先河가 되었다. 우선 法律과 사회지위 상에서 商人은 뚜렷하게 천시되기 시작하여, 秦漢시기에 정부는 城市에서 工商業에 종사하는 자는 일률적으로 ‘市籍’이라는 別冊에 기재하였다. 일단 ‘市籍’에 올라가면 三代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같은 罪를 지은 범죄자로 간주되었다. 漢 高祖 8年(BC 199年)에는 장사꾼(賈人)은 비단 옷을 입을 수 없고, 벼슬하여 관리가 될 수 없으며, 무기를 갖고 있어도 안되며, 수레나 말을 탈 수도 없고, 田宅權도 향유할 수 없게 승을 내렸다.²⁷⁾ 그보다 앞서 高祖 4年(BC 203年)에는 成人남녀는 사람마다

24) 《商君書·墾令》 “商不得糴。則多歲不加樂, 多歲不加樂。則饑歲無欲利。無欲利則商怯。商怯則欲農。”

25) 《荀子·王霸》 “商賈敦慤無詐則商旅安。貨財通, 而國求給矣。”

26) 《荀子·君道》 “工商業則國貧…省工賈。衆農夫。”

매년 ‘算賦’를 납부했는데 100분의 20錢이었다. 商人은 두 배로 내어야 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사회 여론도 商人을 견책하며 상인은 속인다, 간사하다는 일면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西京賦注》는 商人의 경영방법에 대하여 “먼저 좋은 물건을 보여주고, 가격이 정해지면 나쁜 물건을 섞어 놓아 下土의 사람을 속인다. …… 속이고 거짓말하여 얻은 이익은 스스로 믿기에 충족한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秦漢시대에 상업을 천시하고 누른 것은 中央集權 해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기에 결코 우연으로 돌릴 수 없다. 통일된 중앙정부는 정치적으로 官을 本位로 하고, 사회지위의 높고 낮음과 財富의 많고 적음은 주로 權力의 크고 작음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商業社會의 논리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의 능력에 의하여 사회적 財富의 分配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商業社會의 논리와 가치는 官本位사회와 질서와 서로 충돌되었다. 봉건 사대부가 工商을 배척한 것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²⁹⁾

위진시대에는 商人에 대한 억압이 더욱 심하였다. 晉王朝는 立國初에 관리들에게 “地利에 힘쓰고, 游會, 商販을 금지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복식도 工商人을 모욕하는 규정을 하였다. 거간꾼은 모두 일하는 중에 한쪽 발은 흰 신을, 한쪽 발은 검은 신을 신어야 한다던가,³¹⁾ 금·은으로 수놓은 비단옷은 工商이 입지 못한다. 범하는 자는 저자(市)에 시체를 버린다³²⁾는 등 남북조 시대에도 상인에 대한 차별은 매우 심하였다. 明代와 淸初에도 통치자들은 重農抑商, 崇士賤商의 전통적인 정책을 실

27) 《漢書·高帝紀下》“賈人毋得衣錦綉綺?縠紵?。操兵乘騎馬。”《史記·平准書》云“賈人有市籍者及其家屬。皆無得籍名田。以便農。敢犯令。沒入田儻。”

28) 《四京賦注》“先見良物，價定而難與惡物。以斯惑下土之人。……斯僞之利。自饒足恃也。”

29) 取敏《官商之間》(天津 人民出版社 1995) p.42.

30) 《晉書·武帝紀》“務盡也利。禁游食商販。”

31) 《太平御覽》 卷828 “儉賣者，階當着中 …… 一足着白履，一足着黑履。”

32) 《晉書·苻堅載記》“金銀錦綉，工商。皂隸，婦女不得服已，犯者棄布。”

행하였다. 명나라 조정은 농민가정은 고운 명주(紬), 깁(紗)옷, 명주, 무명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商賈 가정은 명주, 무명옷만을 입을 수 있도록 하였고, 농민가정중 한 사람이라도 商賈가 있으면, 전체 집안이 모두 고운 명주, 깁옷을 입을 수 없도록 하였다.³³⁾ 四民사회의 尊卑질서는 "유학을 존중하여 숭상하고, 농민을 귀하게 여기고, 商人을 천시하는"(尊儒尙學, 貴農賤商) 정책으로 고착화되어 商의 사회평가는 가장 낮았다.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모두 四民 등급질서를 고정화, 長久化시켜 그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明末淸初부터 중국사회는 工商業의 발달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하여, 4민 사회의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IV. 新四民論

淸明시기의 변화를 대륙학계는 일찍이 中國資本主義萌芽의 出現으로 보고, 明代의 商品流通과 商人資本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하고 있다. 그것은 明代 市長의 확대를 들 수 있다. 明 永樂때 北京으로 遷都한 뒤, 大運河를 중시하여 永樂 9년(1411) 다시 운하를 개통하였다. 따라서 운하 가까이 商賈들이 개미떼처럼 모여들어 利潤이 풍부하였다. "杭州에서부터 徐州로 가는 水陸 二千里는 마치 고향마당에서 노닐 듯, 마치 방구석에 들어가듯, 마치 침대 속에서 쉬는 듯 하였다."³⁴⁾고 술희한 孫大雅의 말은 당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상업활동이 고향에서 노니는 것처럼 편안하고 한가롭게 생각된 것이다. 운하의 복단에 특히 도시가 발달하여 北京, 德州, 臨淸, 濟寧, 濟南 그리고 開封에 6군데, 鈔關을

33) 《明會典, 庶士中服》.

34) 孫大雅 《滄蠓集》 卷二 <送淮南者橡梅擇之序> "自杭之汴, 水陸二千里. 如游鄉井. 如入堂奧. 如息臥內."

설치하였다.³⁵⁾

이와 같이 市場확대로 유통된 상품들은 주로 1) 糧食 2) 棉花와 棉布 3) 絲와 絲織品 4) 其他 量은 많지 않지만, 소금과 茶등도 장거리 운수로 판매되는 상품이었다. 明代의 식량의 운반판매량은 대략 천만석이며 銀貨로 따져 850만 량이 되었다. 明代에 大商工業 도시가 30여 곳이나 있었는데 南京, 北京이외에 蘇州, 杭州, 廣州, 武昌, 南昌, 成都, 重慶, 開封, 濟南, 臨淸등이었다. 그 대부분이 東南沿海 일대에 集中되어 있었다. 특히 蘇州와 杭州는 “하늘에는 天堂이, 땅에는 蘇杭이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매우 번성한 것도 明清때부터였다고 한다.

번영한 도시에서 工商業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市民계층이 점차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엔 주로 四民중에서 城에서 거주하는 紳士, 地主, 商人, 고리대금업자, 수공업주인도 있었고, 또한 자유직업자인, 운반하는 사람, 車夫, 船夫등이 있었으며, 도시빈민의 떠돌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사회의 興起로 인해 전통적인 四民사회의 貴賤 등급 질서가 혼란스럽게 되어 그 의미를 점차 상실해 갔다.³⁶⁾ 더욱이 明代 安徽商人, 山西商人, 陝西商人 및 江蘇, 福建등 大商人들의 출현으로 그들의 자본이 王公, 大監, 都督과 나란하며, 그들의 “富가 국가에 필적하였다”(富與敵國)고 하였다.³⁷⁾ 商人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意識의 變化도 생겨났다. 明代 王陽明(1472~1528)이 등장하여 官學인 朱子學을 비판하고, ‘致良知’의 心學을 제창하여, 民間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陽明後學중 王龍溪는 現成良知論을 주장하여, 解悟, 澄悟보다는 日常生活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徹悟를 더 중시하였다. 이 계통을 이은 王心齊는 泰州學派를 형성하여 생활의 실천에서

35) 許淦新, 吳承明 《中國資本主義萌芽》(北京, 人民出版社, 1985) p.84

36) 馬敏 《官商之間》 p.47.

37) 許淦新, 吳承明 《中國資本主義萌芽》(北京, 人民出版社, 1985) p.106.

良知를 발휘하였다. 나무꾼, 陶工, 田夫, 商人등이 致良知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陽明學은 民學으로서 明代 思想의 主流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商人의 사회적 지위를 새로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四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났다. 王陽明은 1525년 方麟의 墓表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에는 4민(士·農·工·商)은 직업을 달리 하였으나, 道를 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자기 직업에] 마음을 극진히 한 것은 한가지였다. 선비는 이것(道)을 가지고 수양하고, 가다듬었으며, 농부는 이것을 가지고 먹여 살릴 것을 마련하였으며, 기술자(工)는 이것을 가지고, 도구를 이롭게 하였고, 상인은 이것을 가지고 재화를 유통시켰다. 각기 그 자질이 가까이 한 곳, 힘이 미친 곳에서 생업을 삼아 그 마음을 극진히 발휘할 것을 추구하였다. 그 귀결은 요컨대 사람을 살리는 길(道)에 유익한 데 있었다면, 한결같은 뿐이다.”³⁸⁾

방인은 처음에 선비(士)로써 과거준비를 하다가 포기하고 妻家집 朱氏를 따라 살았는데, 주씨는 예로부터 상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 어떤 친구가 선비(士)를 버리고 商을 따라간데 대하여 불만스런 질문을 하자 방인은 선비(士)가 商人이 되고 상인이 선비(士)가 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다. 방인은 유학을 하는 선비로서 商業에 종사한 전형적 인물이었었는데, 왕양명은 그의 묘표를 쓰면서 異業同道의 新四民論을 펼치었던 것이다. 이것은 四民論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었으면, 선비, 농부, 공인(工人), 상인이 道앞에서는 완전히 평등한 위치에 있으며, 결코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음을 분명히

38) 《王陽明全集》卷25. 外集7〈節庵方公墓表〉(上海 古籍出版社.1992) p.p 940~941.
“陽明子曰 古者四民異業而同道, 其盡心焉一也. 士以修治, 農以具養, 工以利器, 商以通貨, 各就其資之所近, 力之所及者而業焉, 以求盡其心. 其歸要在於有益於生人之道, 則一而已.”

하였다³⁹⁾ 점에서 近代化로 나가는 사상적 기초를 깔아 놓았던 것이다.

“그들이 자기 직업에 마음을 극진히 발휘한 것은 한가지였다”는 말은 왕양명의 ‘良知’를 선비는 선비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자기 직업에 충실히 드러나도록 발휘하였다는 말이다. 왕양명은 “대체로 聖人の 학문은 心學이다. 배움으로써 그 마음을 극진히 발휘함을 추구할 뿐이다. ……聖人이 그 마음을 극진히 발휘할 것을 추구하는 것은 天地萬物을 一本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아버지와 아들을 사랑하는데(親), 天下에 아직 사랑하지 않는(未親)자가 있으면, 내 마음이 아직 극진히 발휘되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 극진히 발휘되면 집은 이 때문에 가지런해지고, 나라는 이 때문에 다스려지고, 天下는 이 때문에 평화롭게 된다. 그러므로 聖人の 학문은 마음을 극진히 발휘하는(盡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⁴⁰⁾고 하였다. 양명은 盡心이란 두 글자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상인(商賈)이 자기의 직업으로 삼는 곳에서 마음을 극진히 발휘하면 역시 이것도 聖人の 학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商人의 일도 선비가 하는 일보다 결코 낮을 수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거리를 가득 메운 것이 모두 聖人이다”(滿街都是聖人)는 학설의 이론적 근거이다.

왕양명은 방린의 묘표에서, “왕도정치가 사그라지고 학술이 어긋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번갈아 가며 이익에 몰려들어 서로 몰아내고 호트러뜨린다. 그리하여 선비를 흠모하고 농부를 낮게 보며 벼슬하여 노니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노동기술(工)과 상행위(商)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 사실을 고찰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39) 余英時 著, 鄭仁在 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3) p.178.

40) 《王陽明全集》卷7 文錄4 〈重修山陰縣學記〉“夫成人之學心學也. 學以求盡其心而已. ……聖人之求盡其心也. 以天地萬物爲一本也. 吾之父子親矣而 天下有未親者焉. 吾心未盡也. ……心盡而家以齊. 國以治. 天下以平. 故成人之學不出乎盡心.”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노림이 심한데, 다만 그 이름을 달리하였을 뿐이다.”⁴¹⁾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의 선비들이 이익을 좋아하며, 물려드는 것은 상인(商賈)보다 못지 않았는데, 다만 이름만 달리 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왕양명은 세속인들이 “벼슬하여 노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노동하고 장사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는” 허위 관념을 철저히 타파하였다. 그는 유학의 大宗師로써 商人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뚜렷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유가윤리의 새로운 장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왕현(1469-1523)의 글에서도 양명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대체로 상인과 선비는 방법을 달리하면서도 마음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훌륭한 商人은 財貨의 場에서 활동하면서 高明한 행위를 닦는다. 이 때문에 비록 이윤을 추구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훌륭한 선비는 先王의 경전을 인용하고, 재화이익의 지름길을 끊어버린다. 이 때문에 반드시 이름이 나고 성공을 한다. 그러므로 이익(利)은 정당한 행위(義)로 통제되고, 이름은 청빈으로 닦아 각기 자기 직업을 지킨다.”⁴²⁾

여기서 “방법을 달리하면서도 마음을 같이한다.”는 ‘異術同心’을 주장하였는데, 왕양명의 ‘異業同道’와 같은 취지인 것이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術)을 달리하면서도 도덕적인 마음(道德心)을 같이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신은 상업이 번창한 江南의 新都市에 풍속처럼 되었다. 따라서 儒學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商

41) 上同. 券25. “...自王道熄而學術乘. 人失其心, 交驚於利. 以相驅軼. 於是始散士而卑農. 榮宦遊而恥工賈. 夷考其實. 射時罔利有甚焉. 特異其名耳. ...”

42) 《空同先生集》券44. 〈人明故王文顯墓志銘〉“夫商與士. 異術而同心. 故善商者處財貨之場而修高明之行. 是故雖利而不汙. 善士者 引先王之經. 而絕貨利之徑. 是故必名而有成. 故利以義制. 名以清守. 各守其業.”

人들의 자부심도 대단하여 “훌륭한 商人이 어찌 큰 유학자만 못하겠는가!”⁴³⁾ “상인이 어째서 선비(士)에 뒤처지겠는가?”⁴⁴⁾는 말을 할 정도였다. 이러한 말은 이전의 商人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明清시대에 사회적 분위기는 商人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何心隱(1517~1579)은, “商人은 농부, 공인보다 크고, 선비는 商人보다 크며, 聖賢은 선비보다 크다.”⁴⁵⁾고, 말하였다.

여기서 四民의 배열이 士·商·農·工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크다는 것은 그 지위나 도덕성의 위대함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실로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商人의 도덕성과 자부심이 그만큼 확보된 셈이다. 新四民論에 의하면 상업은 농업 못지 않게 중시되어 本業의 지위로 상승되었다. 趙南星은 “士·農·工·商은 사람을 살리는 本業이다.”⁴⁶⁾라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朱國禎은 “농업과 상업은 나라를 위한 근본이 되고, 백성의 命脉이다.”⁴⁷⁾라고 강조하였다. 黃宗義는 “이것이 옛 聖王의 崇本抑末의 道인데, 세상 유학자들이 살피지 아니하고, 商工業을 末業이라고 하여 그것을 함부로 비난하고 억제하였다. 대체로 工匠은 진실로 聖王이 가까이 오기를 바라는 바이며, 商人 또한 聖君의 도로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니, 생각컨대 모두가 本業인 것이다.”⁴⁸⁾라고 하여 商工業도 모두 本業이라는 사실을 역설하였다.

이와 같이, 商人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서 “선비가 존귀하지만 아무런 성취가 없으면 농부나 商人만 못하다.”⁴⁹⁾고 하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으며, 清代에 이르러서는 선비가 상인만 못하다는 말까지 등장하기도

43) 《太極集》 卷55 “良賈何負閭儒!”

44) 《明清徽商資料選集》 1342條 “賈何後于士哉!”

45) 《何心隱集》 卷3 〈答作主〉 “商賈大於農工, 士大於商賈, 成賢大於士.”

46) 趙南星 《味槩齋文集》 〈壽仰西雷君七十序仲〉 “士農工商, 生人之本業也.”

47) 朱國禎 《涌幢小品》 “農商爲國根本, 民之命脉也.”

48) 黃宗義 《明夷待訪錄》 〈財計三〉 “此古聖王崇本抑末之道, 世儒不察, 以工商爲末, 妄議抑之. 夫工固聖王之所欲來, 商又使其願出于途者, 蓋皆本也.”

49) 李維楨 《大泌山房集》 106卷 〈鄉祭酒王公墓表〉 “惟士爲尊, 然無成則不若農賈.”

하였다. 歸莊(1913~1673)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비의 아들은 항상 선비가 되고, 상인의 아들은 항상 상인이 된다. 엄씨의 선조는 선비와 상인이 서로 섞이었는데, 舜工은 또 한사람이면서 선비·상인 양자를 겸한 자이다. 그러나 내가 순공의 견지에서 본다면, 상업에 전력하는 것이 마땅하고 자손에게 선비가 되지 말라고 경계해야 되겠다. 대개 오늘날 세상은 선비가 너무나도 천하게 되었다.”⁵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선비와 상인이 서로 섞인 ‘士商相雜’의 현상과 유학을 버리고 상업으로 나가는 ‘棄儒就商’의 경향이다.

漢代에서⁵¹⁾ 明清까지는 四民의 區分이 엄격하여 士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서 四民의 우두머리(首)가 되었으며, 漢武帝는 官吏가 商業活動을 하는 것을 禁止시켰다. 唐나라 開國초기에는 “五品以上은 시장(市)에 들어가지 못하게” 令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明清시대에는 新四民論의 영향하에 선비들의 ‘治生論’(경영방법)이 일어남에 따라서 官吏와 선비들이 工商을 겸하여 운영하여 이윤을 도모하는 일들이 점차로 늘어나 士商相雜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생계유지(治生)를 위하여 하층의 ‘寒士’들은 ‘棄儒就商’하는 사례가 많이 생겨났다. 明清시대 官吏나 선비들이 商業을 하는 구체적 동기는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이는 勲의 본성에서 나왔고, 어떤 이는 治生の 필요에서 나왔고, 어떤 이는 벼슬하는 길(仕途)의 좌절에서 나왔고, 정치방면의 원인에서 나왔지만,⁵²⁾ 그 기본적 동기는 오직 利潤추구였으며, “錢神이 貴하다”는 것이

50) 歸莊《歸莊集·제6권》傳觀齊記. “士之子恒爲士. 商之子恒爲商. 嚴氏之先, 則士商相雜. 舜工又一人而 兼之者也. 然吾爲舜工計. 宜專力於商, 而武子孫勿爲士. 蓋今之世. 士之賤也. 甚矣.

51) 《新唐書·太宗紀》“五品以上, 不得入市.”

52) 余英時著, 鄭仁在譯《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p.190 귀장은 명나라 遺民이며, 그가 상업을 권고하고 선비가 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

明清시기 가장 보편적인 가치취향이었다. 이러한 시대상을 풍자한 《儒林外史》는 선비 林少卿의 입을 빌어 士大夫가 富商大賈의 사치스런 행위를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부러워하는 장면을 묘사한 적도 있는데, 소설 속에서 그럴 뿐 아니라 현실생활도 역시 그러하였다고 한다.⁵³⁾

뿐만 아니라, 富商大賈는 그들의 재산을 이용하여 반대로 官吏의 權勢와 선비의 儒雅를 넘겨다보아, 마침내는 官場을 鑽營하고 儒林에 올라갈 수 있었다. 沈焄는 “옛날의 선비의 아들은 항상 선비가 되었으나, 후세에는 商人의 아들이 비로소 선비가 될 수 있었다.”⁵⁴⁾고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변화를 대변해 주는 말이었다.

商人이 관료·紳士⁵⁵⁾계층에 들어가는 길은 전통사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과거시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재산을 헌납하여 벼슬하는 것이다. 실제생활에서는 踐商의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말미암아 고시는 어렵고, 재산헌납이 商人의 관료·紳士계층으로 나가는 주요한 사다리가 되었다. 明清시대에는 적지 않은 商人들이 致富한 뒤, 자기의 후손을 고려하여 상업을 버리고 儒學을 業으로 삼아 벼슬길에 나아가는 사례가 생겨났다.

‘선비’와 ‘상인’이 광범위하게 융합되어 드디어 紳商계층이 中國 近代에 생겨났고, 또 최근에는 儒家의 정신 하에 企業을 경영하는 儒商이 등장하게 된 것은 오랜 역사적 발전 경로를 거친 것이다. 그것은 明代에 王陽明의 新四民論을 주창한 이래 상업을 하면서도 유학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儒商’들의 맥을 계승한 것이기도 하다.

은 것이다. 漢人 士大夫들이 淸 政權에 투항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53) 馬敏《官商之間》p.57~58.

54) 沈焄《落帆樓文集》〈費席山先生七十雙壽序〉“古者士之子恒爲士，後世商之子方能爲士.”

55) 紳은 퇴직한 관리를 가리킴.

V. 紳商과 儒商

紳士와 商人이 清末사회에서 서로 침투되고 합류된 결과, 19세기 말 20세기 초, 紳商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다. 이 새로운 사회계층은 정치적 지위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점차 전통 紳士계층을 대신하여 대도시는 물론 鄉眞중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在野계층이 되었다. 그들은 紳과 商을 겸한 身分으로 위로는 官府와 통하고 아래로는 工商에 까지 영향을 미쳐 官과 商사이의 완충과 중재역할을 하였다. ‘紳商’이란 용어는 19세기 이후에 비로소 문헌에 나타났고⁵⁶⁾, 20세기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⁵⁷⁾

교육을 받은 정도와 유교문화와의 관계의 깊고 얕음에 따라서 紳商계층은 선비형의 士商과 보통형의 民商으로 구분된다. 士商은 유교문화에 깊이 젖어 있어 商人이라기 보다는 儒士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民商은 利潤추구와 재산 모으기에 마음을 두면서 紳士보다는 명패만 가지고 있으며, 유가정전과 윤리에는 별로 흥미가 없다. 근대의 紳商중에 진정한 ‘士商’의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그들의 학식과 수양은 紳商계층의 중견 인물이 되어 각지방 紳商을 이끌어 갔다. 近代의 ‘士商’은 明清시기의 “상업을 하면서 儒學을 좋아하는”(賈而好儒) 儒商의 맥을 계승한 것이다.⁵⁸⁾

明清시대의 儒商은 “비록 商人이 되었으나, 모두 선비 기풍에 가까웠다.”⁵⁹⁾고 한다. 어떤 儒商은 學術上에도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었다. 蘇州人 鈕樹玉은 淸初의 유명한 經學家이면서 동시에 木棉을 판매하는

56) 余英時著, 鄭仁在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 p.288(注167)에서 ‘紳商’이란 이름은 혼합된 낱말인지, 紳과 商을 나누어 가리키는지 토론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麟慶이 사용한 ‘紳商’은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57) 馬敏, 《官商之間》 p.93.

58) 同上 p.109.

59) 《戴震文集》卷12.〈載節婦家傳〉“雖爲賈者, 咸近士風.”

行商이었는데, 商業과 儒學을 一體化시키었다. 그는

“직업은 木棉을 판매하였다. 배(舟船)와 수레(車驛)사이에는 반드시 經典과 史書가 저절로 따랐다. 돌아오면 고요히 방에 앉아 하루종일 著書하였다. 도봇장사하며 오고 갈 때마다 반드시 邦上을 지나며 남아서 邑中の 經學之士와 며칠동안 講論하다가 가버렸다.”⁶⁰⁾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儒商은 경전에 대한 이해가 깊어 유가 윤리도덕을 내면에 깊이 간직하였을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자신의 명예와 수양을 중시하였다. 그들은 “큰 뜻을 가지고 자질구레한 이익사이에 국한되지 않아”⁶¹⁾ 공손하게 儒者의 기품을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義로운 행위를 통해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가족과 친척에 대하여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예컨대, 徽商 吳國綿은 清代 休寧利林人인데 소금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었다. 그는 늘 고향사람을 구제하였는데, “친척과 이웃마을의 혼례·장례를 치를 수 없는 자는 모두 힘써 두루 구제하였는데, 60년이 하루 같았다.”⁶²⁾고 한다. 가난한 이웃과 친척을 도와준 儒商의 예는 이루다 헤아릴 수 없다.

明清시대 儒商들은 유가윤리에 바탕을 두고 商業活動을 하여 이른바 ‘賈道’라는 직업윤리를 형성하였다. 그들은 仁·義·禮·智·信·誠등 유가 윤리규범을 그 핵심으로 삼고, 상업활동을 하는데 至誠으로 사람을 대접하고, 信用을 제일로 삼으며, 義를 利보다 앞세우고, 經商原則을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賈道인 것이다. 그러나, 賈道는 또 하나의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인 방법을 운용하여 돈을 버는 목적에 도달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Weber가 말한 합리화과정에 해당된다.⁶³⁾

60) 李斗 《楊州書航錄》卷10 “業賈販木棉。舟船車驛之間。必載經史自隨。歸則寂坐一室。著書終日。每負販往來。必經邦上。留與邑中。經學之士。講論數日乃去。

61) 《明清徽商資料選編》제453 “有大志不局局維利間。”

62) 嘉慶《休寧縣志》卷14. 〈人物. 孝友〉“姻族鄰里之緩急。不能婚葬者皆力爲周濟。六十年如一日。”

63) 余英時著. 鄭仁在譯 《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p.255.

徽商 鮑雯은 그 전형적인 예로서 “君은 어렸을 적, 돈독하고 민첩하였으며, 책읽기를 좋아하였다. 손으로 6경 子史의 大義를 기록하여 쌓아 놓은 것이 10상자나 되었다.” 아버지의 喪을 당하여 儒學을 버리고 장사 길로 나간 뒤에 “비록 시장에 발자취를 섞었으나, 한결같이 書生 文道로써 행위 하였고, 일체 治生家의 잔피나 이익은 모두 물리치고 쓰지 않았다. 오직 至誠으로 사람을 대우하였다.”⁶⁴⁾ 그의 이러한 ‘賣道’는 상당히 효과가 컸다고 한다.

薄利多賣의 방법 역시 儒商이 존중하는 ‘賣道’의 예이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돈버는 합리적 과정을 뜻한다. 서적 도매상 陶正祥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이다. 그는,

“他人과 서적을 무역하며, 경박하게 얻은 이익을 계산하지 않았다. 서적이 만약 百金값이 나가는 것을 자기가 10金으로 얻었으면 단지 10餘金에 팔았다. 스스로 얻은 것이 만약 10金인 것은 파는 것 역시 나머지만 취하였다. 그 보존한지 오래된 것은 나머지를 많이 취하였다. 말하길, ‘내가 잉여를 추구하여 입에 풀칠할 뿐이다. 자기가 이익을 좋아하고, 역시 책을 구매하는 자로 하여금 그 이익을 얻도록 한다. 남들이 이익을 바라는 것이 누가 나만 못하겠는가? 내가 이익을 독차지하고 물건이 적체되어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서적을 판매하여 매우 큰 이익을 얻었다.”⁶⁵⁾

이 서적상이 말하는 賣道는 보통 상인이 조그만 이익에 연연하는 것

64) 《明清徽商資料選編》p.451 〈歙新館鮑氏著堂宗譜〉卷2

〈鮑解占先生墓地銘〉“君少敦敏，喜讀書，手錄六經子史大義，積數十篋。…雖混迹塵市，一以書生文道行之，一切治生家，智巧機利悉屏不用，惟以至誠待人。

65) 余英時著，鄭仁在譯，《中國近世宗教倫理와 商人精神》p.274

《孫淵如詩文集》〈五松園文稿〉“與人貿易書，不沾沾計利所得，書若值百金者，自以十金得之，止售十餘金，自得之若十金者，售亦取餘，其存之久者，則多取餘，曰‘吾求贏餘以糊口耳，已好利，亦使購書者獲其利，人之欲利，誰不如我？我專利而物滯不行，猶爲失利也。’以是售書甚獲利。”

과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近代의 ‘士商’은 전반적으로 明清시대의 ‘儒商’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하여 근대 역사적 조건하에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어 자기의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 중국의 近代는 西勢東漸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通商의 중요성이 높아가던 때이다. 이 때, 서양의 영향을 받은 紳商 鄭觀應은

“商務란 國家의 元氣이다. 通商이란, 그 血脈을 소통시켜 잘 통하게 하는 것이다.”⁶⁶⁾라고 하여 商業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구식 書院교육에서 서양식 學堂으로 바꾸어 專門家を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관웅과 함께 李鴻章에게 上海 機器織布局會辦에 임명된 紳商, 經元善(1841~1903)은 부친에 이르러 家勢가 가난하여 儒學을 버리고 商業을 배웠다. 결과적으로 맨손으로 治富하여 수십만 금이나 되었다. 經元善은 어려서 上海에 살면서 17세 때, 경영방법(賈)을 배웠는데 25세 때 부친의 사망으로 그는 上海 同仁輔元堂 理事를 맡았고 30세 때 ‘仁元錢莊’을 승계하였다. 40세, 그는 자선활동에서 드러난 才能과 경험으로 이홍장을 도와 洋務운동에 참여하였다.

經元善은 1893년 上海에 “經正書院”을 개설하고 梁啓超등 이름 있는 新學人物을 초빙하여 中國과 西洋을 아울러 교과목으로 가르쳤다.(中西并課) 1897년에는 〈中國女學堂〉을 창설하여 女子들의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經商을 한 나머지는 열심히 慈善, 教育活動에 종사하였는데, 그 주요한 사상근거는 유교윤리였다. 馬敏은 經元善의 사상의 특징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⁶⁷⁾

첫째, 儒學의 정신으로 자기를 단속하고, 유학을 商業에 융합시킨다. 經元善은 비록 과거에 응시하지는 않았어도, 四子書를 어려서 熟讀하였다. 그러므로, “終身토록 뜻을 세워 한 일은 聖賢을 배우기를 원하고,

66) 鄭觀應《盛世危言》〈戶政, 商務一〉“商務者, 國家之元氣也. 通商者, 疏暢其血脈也.”

67) 馬敏《官商之間》p.116-120.

儒明의 宗旨를 감히 배반하지 않는 것이었다.”⁶⁸⁾ 이것은 바로 ‘士商’의 근본적 특징이다.

둘째, 功名利祿에 담담하고, 군센 의지로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았다. 경원선은 스스로 3가지 점을 하겠다고 요구하였는데, 하나는 “世俗을 따라 곧은 길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그 다음은 헛된 명예를 도둑질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며, 끝으로 돈이나 재산으로 관직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가훈을 엄격히 지켰는데, 그 내용은 “무릇 우리 자손은 바른 길로 出身하여 직책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지름길로 요행히 功名을 얻는 자는 즉 불행하게 된다.”⁶⁹⁾

셋째, 金錢에 얽매이지 않고, 이윤추구는 알맞으면 그만둔다. 경원선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하찮은 돈이지만 반드시 꼼꼼히 따지는 일은 사실 본성이 가까이 한 바가 아니다.”⁷⁰⁾ 그는 ‘검소한 데서 사치로 들어가는 것은 쉬우나, 사치한 데서 검소한 데로 들어가기 어려우니’ 매우 두려워 할 만하다.”⁷¹⁾고 하였다. 이러한 생활습관으로 그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였으며, 자손들에게 經商의 재능과 동시에 유가 윤리교육을 시키고, 돈과 재산을 반드시 남겨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스스로 지은 三字經에서 ‘남은 자식에게 금이 가득 찬 광주리를 물려주지만, 나는 자식에게 經만이 유일하다’고 가르친다(人遺子, 金滿贏, 我教子, 惟一經)고 하였다. 이 때의 經은 유가경전을 말한다.

경원선은 近代 ‘士商’의 전형적인 표준인물로서 그는 근대적 성격의 士商倫理를 세워 놓았다. 그는 특히, 新式교육을 통하여 유학을 근대화시키는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古代의 선비의 역사적 전

68) 《五齋齊記》《經元善集》p.238 “終身立志行事。願學聖賢。不敢背儒門宗旨。”

69) 同上. p.239 “凡我子孫。際正途出身受職外。以捷徑。幸得功名者。卽爲不幸。

70) 《經元善集》〈富貴在大說〉“錙銖必較。實非本性所近。”

71) 同上. 〈五齋齊記〉“由儉入奢易。由奢入儉難。可深懷焉。”

통을 계승하여, 明清시대의 儒商의 맥을 간직하면서도 현대 동아시아 유교적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유가형 기업가인 儒商의 先河가 되기도 하였다.⁷²⁾ 다시 말해, 그는 전통적 儒商과 함께 현대 유가적 자본주의 企業家의 교량 역할을 한 것이다.

鮑健強은 새로운 시대의 儒商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儒商은 현대세계가 東西半球의 두 가지 異質文化의 충격과 융합으로 이루어진 체계이므로, 첫째는 유상은 현대 공업문명 및 중국현대화의 직접 참여자와 추진자로서 경제부흥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과학 문명의 무장 없이, 현대기술과 현대 관리의 지지 없이 儒商은 그 존재의미와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둘째, 유상은 국제적 商務의 先鋒으로써 상품무역을 유대로 삼고 과학 기술교류, 文化교류를 동반하며 빈번한 국제 무역 왕래 중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반쪽 文化교류의 使者가 된다. 셋째, 유상은 世紀를 뛰어넘는 중국의 商賈文化, 商賈理念, 商賈哲學의 실천자이다.”⁷³⁾

현대적 儒商은 明清시대의 ‘유상’과 近代의 ‘士商’과는 달리, ‘儒敎文化’의 바탕 위에서 현대 과학 기술과 현대 경영 방식을 터득한 지식인(士)이라고 할 수 있다. 儒商은 東西洋 文化의 교차점에서 새로운 企業文化, 商賈文化를 만들어 내고 실천하는 지식형 商人, 技術型 商人, 文化商人인 것이다.

이러한 현대적 ‘儒商’의 효시를 大陸學者들은 東西文化의 성공적 융접을 한 日本의 合金文化에서 찾기도 하였다. 鮑健強은 “合金文化의 과정 중에서 日本商人들은 磨滅할 수 없는 功績을 만들었는데, 日本商人은 상업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넓은 가슴으로 東西文化의 장점을 널리 채택하여 독립적인 企業文化, 會社文化, 商賈理念, 商賈哲學을 세워 日本 新文化의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⁷⁴⁾고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72) 馬敏 《官商之間》 p.119-120.

73) 鮑健強, 蔣曉東 《儒商之道》 p.24.

그 구체적인 예로 日本郵船, 東京가스, 日本시멘트, 東洋방직, 王子제지 등 500여개의 회사와 기업을 창건하고, 日本 第一勸業 은행을 창건한 瀧澤榮一을 들고 있다. 그는 재산의 축적, 실업의 개척에 노력을 하였을 뿐 아니라, 近代 商賈의 理念을 찾아내어 現代 日本 企業家의 정신적 스승으로 기려지고 있다고 하였다. 瀧澤榮一은 언제나 《論語》를 身邊에 휴대하고 다니었으며, 일본기업을 주판과 《論語》기초 위에서 건립하기를 희망한 日本 近代의 傑出한 ‘儒商’이라고 하였다. 瀧澤榮一은 당시 日本의 官尊民卑의 분위기가 성행하던 때 정부의 관직을 사임하고, 四民 중에서 지위가 가장 낮은 商人들의 바다(商海)에 투신하여, 뿌리깊은 전통관습과 항쟁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모델로 하여 戰後 日本은 一代의 儒商을 길러내었는데, 그들 가운데 德望이 높은 기업인 松下幸之助, 경영의 神인 盛田昭夫, 경영의 聖인 稻盛和夫 등등이 전후 일본 경제를 눈부시게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戰後에 日本 一代의 儒商이 우뚝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鮑健強은 첫째로 瀧澤榮一같은 인물이 儒商의 모범을 모여 일생 동안 義(윤리)와 利(경제)가 合一되는 儒商의 道를 실천하였으며, 둘째로 日本商人은 유가윤리에서 중시되는 ‘重義輕利’의 전통적 고정관념을 지양하고, ‘義利并重’의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써 경제번영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셋째로 日本商人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과정에서 정신적 수양이나 도덕적 소질을 중시하지 않으면 物欲에 오염되거나 파멸할 수도 있다고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戰後 日本이 급속도로 성장한 정신적 배경이라는 것이다.⁷⁴⁾ 日本의 경제성장을 모델로 臺灣, 싱가포르, 香港, 한국 등 이른바 Asia의 네 마리 작은 龍이 비약적 경제 발전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저서가 한국의 IMF직전 (97년 8월 출판)된 것이어서 Asia적 가치에 바탕을 둔 경영방식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

74) 鮑健強, 蔣曉東著 《儒商之道》 p.38-40.

75) 上同.

은 우리 나라를 제외하면 아직도 유효한 논의라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건전한 유교적 가치가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우리 나라에도 儒商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며,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政經유착에 의하여 만들어진, 다시 말해 官과 商이 어우러져 생긴 ‘官商’(Bureaucratic merchant)이라고 할 수 있으나, ‘儒商’(Confucian merchant)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엔 아직 부족하다. 그것은 아마도 구조조정이 끝나고, 기업의 투명성과 함께 그 윤리성이 드러날 때 비로소 가능할지도 모른다.

중국대륙이 80년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 개인(私營)기업, 그리고, 鄉鎮企業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종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익추구를 합법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회 질서, 도덕을 무시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적 윤리의식을 갖고 商業活動을 하는 企業人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儒商’이라는 모델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현대적 ‘儒商’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연구소나 대학에 몸담고 있던 科學技術을 가진 知識人들의 下海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下海’란 문자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다는 것이다.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에 익숙지 못하면 사망하듯이, 지식인이 무자비한 이익추구에 여념 없는 商業世界에 투신하여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잃게 되면 보통 상인만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의 下海는 도덕적, 정신적인 무장을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인으로서의 원래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 성공한 商人을 우리는 儒商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張彦의 분석에 의하면, 현대의 산업사회는 자본주의 발달로 인하여 工商의 역할은 유례없이 중시되었으며, 특히 과학기술은 고도의 창조성

을 갖는 노동이므로 과학기술과 경제활동의 결합은 지적 재산권의 과학기술 성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다.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들이 業餘시간을 이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자문, 생산품 설계 및 교학 등에 종사하다가, 어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겸직에서 하던 일을 본업으로 삼아서 전적으로 자기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下海라고 한다. 그들은 市場경제 체제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남을 해치고, 속이는 市井雜輩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믿음, 명예, 책임감, 상호이익 등을 목표로 행위한다. 그들은 과학기술을 거대한 생산력으로 전환시켜, 경제적인 효율과 이익을 창출해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리의식(義)과 이익(利)이 훌륭하게 결합하여 儒商이 출현된다는 것이다.⁷⁶⁾ 이것은 대륙이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 던지고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칫 빠지기 쉬운 賤民資本主義를 경계하기 위하여 전통적 유교적 가치를 현대에 되살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생겨난 것이다.

서구적 가치에 대한 아시아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 기업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며, 21세기를 이끌어 갈 중국의 비전을 말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內聖外王, 즉 新外王의 구체적인 내용인 儒商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VI. 結 論

西勢東漸 이후, 平天下의 이상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자기보다 학적 사색이 깊은 佛敎와 老莊을 극복하고 新儒學을 탄생시킨 유학자들은 서구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제1세대 현대 신유학자들은 중국문화에 결핍된 科學

76) 張彥 《市場經濟與 中國科技知識分子》(河南 人民出版社, 1995.12) p.p75-86 참조.

과 民主를 받아들여 유학을 현대화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제3세대 현대 신유학자들은 (林維明, 成中英 等)은 자본주의 문화와 유학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儒商’개념이 논의된 것이다.

‘儒商’은 ‘유교적 자본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日本과 東Asia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정신적 배경을 儒學사상에 바탕을 둔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儒商이 거론된 것이다.

‘儒商’의 개념은 1990년 初에 생겨났지만, 그 연원을 따져 올라가면, 춘추전국 시대의 ‘士’에까지 이른다. ‘士’는 고대사회의 지식계층으로서 원래는 정치, 교육의 합일체였던 王官之學이 이른바 ‘철학적 돌파’(philosophic breakthrough)를 통하여 제자백가로 分散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통치를 맡는 官吏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師)가 분리되고, 교육에 종사하는 지식 계층인 士는 天下에 道를 전수하는 것을 자기 책임으로 삼았다.

‘士’는 四民(士農工商)의 우두머리로서 고매한 도덕을 가지고 현실 권력과 이익에 초연한 독립적 인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士는 또한 정치에 참여하여 자기의 도덕적 이상(道)을 실현하는 것이 그의 도덕적 의무였다. 그러나 현실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벼슬자리(位)와 도덕적 이상(德)사이에 갈등, 긴장관계가 생길 때는 벼슬자리를 버리고 떠나며 어떤 때는 道를 위하여 生命까지 바치는 경우도 있다.

商人은 원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士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商人중에 巨商인 范蠡, 白圭, 子貢같은 人物은 재산의 축적에만 힘을 쓴 것이 아니라, 모은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儒商의 元型的 모습을 보여 주었다.

漢代 中央集權 체제가 강화된 후 官本位 사회에서, 토지에 매어 있는 農民보다 勸力の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商人은 늘 규제의 대상이

되어 工商은 末業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四民의 계층적 질서가 생겨났다. 그것은 淸朝시대 商工業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생길 때까지 계속되었다.

淸朝시대는 資本主義 맹아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大商들이 활약하였다. 商工業의 발달로 인하여 새로운 市民階層이 점차로 형성되기에 이르렀고, 四民 중에서 城에서 거주하는 地主, 商人 및 도시빈민 떠돌이 등이 생겨 전통적 四民질서는 귀천등급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大商人의 출현으로 商人의 지위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에 따라 의식도 변화하였다.

유학을 하는 선비로써 商業을 했던 方麟의 묘표를 쓰면서 王陽明은 同道異業의 新四民論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인 四民論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선비, 농부, 工人, 商人이 道를 같이 하면서 그 직업만 달리 한다는 평등사상은 근대화로 나가는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왕양명은 聖人の 학문은 心學이며, 자기 마음을 극진히 발휘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商人도 자기가 하는 일에서 良知를 극진히 발휘하면 이것 역시 聖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商人이 하는 일도 선비 못지 않게 중요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商人의 자부심도 대단하여 “훌륭한 商人이 어찌 큰 유학자만 못하겠는가?” “상인이 어찌서 선비에 뒤처지겠는가?”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新四民論에 의하여 상업은 농업 못지 않게 중시되어 本業의 위치까지 상승되었다. 황중의는 “商工業도 모두 本業이라고” 명확히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淸朝시대에는 상업을 하면서도 儒學을 좋아하는(賈而好儒) 儒商들이 등장하여 ‘賈道’라는 직업윤리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西勢東漸으로 淸末民初에 紳士와 商人을 겸한 身分인 紳商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紳商은 유교교육의 영향이 깊고 알음에 따라서 선비형 士商과 보통형 民商으로 구분된다. 士商은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그들의

학식과 수양으로 인하여 각 지방 紳商계층을 이끌어 갔다. 近代의 士商은 明清시기의 儒商을 계승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 인물이 經元善이었다. 그는 유학의 정신을 商業에 융합시켜 근대적 성격의 ‘士商倫理’를 세워 놓았다. 최근(90년대)에는 中國의 개혁개방으로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日本과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龍을 모델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東亞細亞의 기업경영방식이 이루어낸 결과인데, 그 정신적 배경은 유교라는 것이다. 유교적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들은 유교적 문화전통 속에서 지식인이 下海를 하여, 자기의 본래의 직업윤리(儒學)를 지키면서도 기업활동을 하는 ‘儒商’의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미래학자는 예측하고 있다. 이 때, ‘儒商’들의 활약은 더욱 그 빛을 더 할 것이다.